



주간통일정세 2009-28(2009.07.06~07.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김일성 15주기 추모대회 참석(7/8,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오전 평양체육관에서 김일성 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 지난 4월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 이어 3개월만에 외부세계에 움직이는 모습을 드러냄.
 - 8일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중계된 추모대회에서 다소 다리를 절룩거리려는 모습으로 입장해 주석단에 앉았으며, 대회 시작 후 일어서서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추모묵념을 하기도 하는 등 3개월 전과 큰 변함없는 동작을 보여줌.
 - 다만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거나 앉아서 자료를 읽을 때 화면에 잡힌 그의 머리 윗부분은 카메라가 정면에서 비출 때와 달리 머리숱이 많이 빠져 있는 게 드러났으며, 행사장에 입장할 때나 앉아 있을 때 대체로 무표정한 가운데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다소 비틀어진 게 나타났음.
 - 이날 추모대회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에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안치하고 주체연호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하며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법제화한 것을 가리켜 “수령에 대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라고 찬양
 - 그는 “150일 전투를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돌파하고 농업생산과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덧붙임. 앞서 이날 0시 김 위원장은 북한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

- **美CIA, 김정일 5년내 사망 가능성 71%(7/11, 조선일보; 7/9, 워싱턴타임즈)**
 -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29%에 불과하다고 최근 우리 정보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
 - 정부 소식통은 10일 “미 CIA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정밀분석한 자료를 지난달 우리 정보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CIA는



- 김 위원장이 뇌졸중과 당뇨병의 후유증 등으로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고 소개
- CIA의 이 같은 추정치는 김 위원장의 나이, 질병, 신체조건 및 뇌졸중을 맞은 시기와 그 이후의 신체조건 변화 등을, 의료관련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 분석해 구한 것으로 알려짐.
 - CIA는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 사진 등 공개 정보 외에 우리 정보당국이 입수한 김 위원장의 뇌 사진과 고급 정보원들의 증언 등 각종 정보와 첩보를 종합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지표화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워싱턴타임스(WT)는 9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뇌졸중을 앓은 이후 종전에 건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리 쇠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강으로 인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최근 서양 의약에 따른 치료를 포기한 채 한약과 비전통적 요법 등 동양 의약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김정운 나이·경력·학력 ‘부풀리기’(7/8,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아들 김정운의 나이를 30대 중반이라고 소문을 내고 학력과 경력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8일 “북한 당국이 이제 겨우 25세에 불과한 김정운의 나이를 무려 열살이나 부풀려 35세로 소문을 내고 있다”며 “어린 김정운을 후계자로 앉힌 데 따른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운에 대한 충성경쟁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도 최근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은 충성을 다짐하며 올린 ‘충성의 편지’에서 “김정운 대장동지께서 보위사업을 20년간 지도하시어...보위사업의 영재”라고 말해 김정운의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짐.
- 열린북한통신과 데일리NK 등 대북 소식지들도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김정운의 나이를 30대 중반, 또는 36세로 소문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
- 김정운은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 외모상 30대라고 해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전문, 김정운은 키 167cm에 몸무게는 87kg 정도로 작은 키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처럼 굽높이 5cm 이상의 구두를 신고 다니며, 현재 국방위원회 지도원 직책이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즐겨입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또 김정운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사실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김정운은 2002년부터 2007년 4월 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주체의 영군술’을 비롯해 군사학을 교육받았으나 등하교를 하지는 않은 채 집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원으로 등록한 이 대학 교수들로부터 개인교습을 받는 방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기본 5년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 대학 교수들로부터 수개월에서 1년정도 단기 교육을 역시 개인교습 방식으로 받았을 수는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추정,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운이 스위스에서 귀환한 뒤 평양시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동북 형인 정철과 여동생인 여정과 함께 개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나. 정치 관련

● 김영남, 비동맹회의 참석차 이집트행(7/12, 연합뉴스)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평양을 출발, 베이징을 경유해 이집트로 떠났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NA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하고 김 위원장이 출국하는 공항에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형준 외무성 부상,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와 중국 임시대리대사가 전송했다고 소개

● 北-中 접경지대서 매일 총성(7/12, 산케이 신문)

-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는 거의 매일 탈북자 저격 등을 위한 총소리가 들린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기 ‘평양의 수족관 :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10년’의 저자인 탈북자 강철환씨의 발언을 인용해 12일 보도
- 신문은 강씨가 “총성은 북한 인민군의 탈북자 저격, 뇌물을 받고 탈북을 눈감아 준 군인들을 공개처형하는 소리”라고 말했다고 소개, 강씨는 이런 배경에 대해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식량난은 극히 악화해 있어 주민은 ‘아사냐 탈북이냐’의 양자선택에 몰려 있다. 인민군은 30만명을 접경지대에 배치해 탈북자들을 저격하고 있다”고 산케이에 말함.
- 이어 산케이는 강씨가 “중국 측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없으면 100만 명이 넘어올 것”이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주민이 달아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중국의 강제송환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



● 양형섭, 만경대 혁명일가는 위인 찬양(7/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혁명일가”를 “절세의 위인들”이라고 찬양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양 부위원장은 9일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형직의 115회 생일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만경대 혁명일가의 절세의 위인들을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이 땅 위에 위대한 사상으로 존엄 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무적의 군력으로 백승 떨치고 우주를 정복하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받아 안은 최대의 행운, 최상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
-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며 “‘150일 전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것”을 촉구
-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를 비롯해 당, 군, 정권기관 일꾼 등이 다수 참가

● 北김정일, 로켓발사때 ‘아버지 가호’ 빌어(7/8, 노동신문)

- 북한이 지난 4월4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그 장면을 봤을 뿐 아니라 직접 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발사 명령 직전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
- 김 주석 사망 15주기를 맞아 4면에 게재한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의 서사시 ‘이 세상 끝까지, 세월 끝까지’를 통해서 소개됨.
- 이 시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발사에 관한 대목에서 “우리 수령님/ 것처럼 소원하시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이라며 “발사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앞탁을/ 지그시 두손으로 짚으시고/ 그이 조용히 외우시는 단 한마디/ —수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읊었음.

다. 경제 관련

● 北원산, 발전소 덕에 야경 보며 회 즐겨(7/7, 조선신보)

- 북한의 동해 항구 도시인 강원도 원산에서는 지난 1월 원산청년발전소 준공에 따라 야간 조명으로 “황홀한 불야성”이 펼쳐진 가운데 시민들이 생선회도 즐겨 먹는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동명산지구에 위치한 15~3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해안광장을 중심으로 120여곳에 야간조명인 불장식이 설치



- 때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이채를 띠는다고 소개
- 원산은 북한의 대도시 가운데 평양 다음으로 변화한 곳으로 알려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일본의 북한선적 선박 입항 금지 조치가 있기 전에는 만경봉-92호가 매달 2차례씩 원산과 일본 니카타(新潟)항을 오간 덕택에 북한은 90년대부터 재일교포들을 겨냥해 원산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등 나름 변화한 도시로 조성하는데 주력
 - 이번 원산발전소 준공으로 야경이 이처럼 볼만해지자 원산 시민들은 ‘황혼이 깃들기 바쁘게 등대가 있는 장덕섬이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잔교, 해안 방파제 등에 발 디딜 자리 없이 모여들어 시내 불장식을 한 눈에 바라본다’고 신문은 보도
 - 특히 이 같은 밤 나들이 시민들을 겨냥해 수많은 매점들이 생겨나 낚시로 금방 잡은 오징어, 대양어, 꽁미리, 송어 등을 생선 또는 탕으로 가공해 즉석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시민들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설명
 - 현지 시민 뿐 아니라, ‘원산에 출장 온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이곳 해안 방파제에 들러 시내 불장식을 구경하고 생선회를 맛보고서야 귀로에 오르며 특히 송도원여관, 동명여관 등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불장식 구경과 생선회는 빠질 수 없는 관광 일정’이라고 소개
 - 조선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5월 원산시 야간조명 현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평양시 불장식에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

● 北 휴대전화용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7/7, 연합)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려명’이 “손전화(휴대전화)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 북한 언론매체들의 보도나 체제 선전용 영상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7일 확인됨.
- ‘려명’은 지난 5월 중순 “공화국(북한)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보려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손전화용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다고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5월 22일 보도했었음.
- 실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려명’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북한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포함한 ‘평양소식’, 민요와 아동가요 등 100곡이 수록된 ‘음악감상’, 도서와 미술, 특산물, 상표전 시장이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고, 백두산과 대동강, 역사유적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것도 볼 수 있음.
- ‘려명’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은 세계 어디서든 휴대전화를 통해 이곳에 접속,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의 주요 기사와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 조국통일 주제의 생동한 화보, 화첩들”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손전화용 음악 봉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봉사들을 더 많이 진행하여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라. 군사 관련

● 北사이버전 전담부대 110호연구소(7/10, 연합)

-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이 지목한 북한 인민군 산하의 ‘110호 연구소’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정찰국’을 일컫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은 10일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로, 이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사이버 관련해서 훈련이 잘된 부대”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110호 연구소, 즉 기술정찰국은 1990년대 초부터 평양 고사포사령부의 컴퓨터 명령체계와 적군 전과교란 등을 연구하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121소(부)를 1998년부터 해킹과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
- 한 북한군사 전문가는 “110호 연구소는 기술정찰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군의 00사단을 00부대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경우”라며 “이 같은 사이버 관련 조직이 110호 연구소 외에도 국가보위부 등에 몇개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언
- 110호 연구소 부대원들은 2000년 말까지 해킹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2001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사이버전(戰) 임무를 수행, 군사관련 기관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빼내거나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것이 이 기관의 주임무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음.
- 이 부대는 주로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과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짐. 지휘자동화대학은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매년 바이러스 전문요원과 기술요원 각 10여명, 일반 컴퓨터 요원 80여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10여명이 110호 연구소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외에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자동화국은 사이버전 해커요원 운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전문 해커를 다수 보유, 지휘자동화국 산하에는 장교 50~60여명으로 구성된 해킹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이 포진한 31소,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2소,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56소가 있으며, 이들은 평시 해킹임무에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보급용 전자피아노·풍금 개발(7/12, 조선중앙TV)**
 - 북한 문화성이 최근 숫자식(디지털) 전자음향 분야의 첨단기술로 북한식 대중용 전자피아노 ‘소백수’와 전자풍금 ‘장자산’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
 - 방송은 이 전자피아노는 조립식에 소비전력 80와트이며 88개의 건반이 있고, 전자풍금은 건반 61개짜리라고 설명하고 소백수와 장자산이라는 이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해줬다고 소개

- **北통신, 집단체조 ‘아리랑’ 8~9월 공연 보도(7/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통신은 이날 지난 2002년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과 북한군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처음 공연된 ‘아리랑’은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굳게 뭉친 선군 조선의 불패의 위력과 조선인민의 무한 대한 정신력, 주체문화예술의 발전 면모를 온 세상에 과시”해 왔으며 이같이 밝힘.
 - 통신은 또 “창조집단과 출연자들은 작품을 마감단계에서 훌륭하게 재형상(개작)하고 있다”고 언급, 일부 장면이 재창작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북한은 올해 ‘아리랑’ 공연 관람료와 관련해 좌석에 따라 지난해 40~240유로에서 80~300유로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해외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에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4월 11일 보도한 바 있음.

2. 대외정세

가. 유엔안보리 재제 관련

-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결의 위반 비난(7/7,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간다의 루하카나 루군다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언론 구두설명(press remarks)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비난하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언급
 - 이날 3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루군다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

- 일본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그러나 추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음. 이날 발표된 의장 구두설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 회의의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의장이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발표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P5+2(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주요국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 참가국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음. 그러나 이 주요국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음.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 억류여기자 사면해야(7/11,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은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사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은 이들 젊은 여성 2명이 북한 법에 따라 사면돼 그들의 가족 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는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두 여기와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의 아닌 과오에 대해 북한이 사면을 통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
-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여기자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

● 美합참부의장, 사이버공격 北탓 돌릴 수 없어(7/10, 자유아시아방송)

-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민간 기관들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관련,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한 서버가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북한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재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뒤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DDoS공격은 “비교적 초보적”이며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not bad)”고 언급

● 美윌러드 지명자, 北도발에 대응태세 갖춰야(7/10, 연합)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지명자는 9일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힘.
- 윌러드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지난주 이뤄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이런 도



발에 맞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미국내 범정부 차원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최근 북한이 감행한 일련의 도발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권력승계, 한국의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을 복합적인 원인으로 꼽음. 이어 그는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미국무부, 사이버공격 모든 대응 강구(7/9, 미국무부)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주요 정부의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공격과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9일 밝힘.
- 켈리 대변인은 ‘이번 공격과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에 맞서 컴퓨터긴급대응팀과 협력,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와 다른 정부기관이 협력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는 국토안보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
- 이번 사이버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의 추종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켈리 대변인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 美재무차관, 홍콩금융관리국 방문(7/9, 연합)

- 미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나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대려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홍콩 규제 당국자들과 만남.
- 사실상 홍콩의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투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HKMA 관료들과 만났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뤄진 논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

● 北역류 美여기자, 내가 北 법규 어겨(7/8, CNN, AP 통신)

-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로라 링이 7일 밤(이하 미국 현지시간) 자신의 언니와 짧은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CNN, AP 통신 등 외신들이 8일 보도
- 링 기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자신과 동료 기자인 유나 리가 북한의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리사는 전언
- 링 기사는 또 자신이 궤양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있으며 몸 상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리사는 소개



● **오바마, 핵 이외에 주권지킬 방법 있다(7/9,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핵 이외에도 국가들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포기를 촉구,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핵무기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길로 나아가도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언

● **오바마, 강남호 회항, 긍정적 진전(7/7, ABC방송; CBS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금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 강남1호의 북한 회항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의 결과라면서 높이 평가
- 러시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노력으로 북한 선박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봤다”면서 “이는 긍정적 진전(positive step forward)”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2~3년 전이었더라면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 체제와 관련해 우리는 매우 강한 일치를 봤다”고 강조, 그는 이어 “북한은 상당히 예측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은 권력 승계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찾아내는 정보는 매우 확실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7일 CBS방송에도 출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어떤 전쟁도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는 “그들(북한)은 미국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빚으면 제압당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투먼-北청진 관광철도 개통 지연(7/11, 연합)**

- 북한과 중국간 최초의 관광철도 개통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째 늦춰지고 있음. 1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 5월부터 운행키로 합의했던 지린(吉林)성 투먼(圖們)과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청진-칠보산을 잇는 북-중 간 관광철도가 지금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투먼과 안투, 단둥 등에서의 북한 변경관광을 3년만에 재개하면서 북-중간 최초로 투먼-칠보산 간 관광철도를 운행키로 북한과 합의,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지난 5월 북한 내



사무소 설치, 관광 열차 제공, 철도 보수 등에 관광철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 그러나 투먼의 한 여행사는 “협약 체결 이후 철도 운영을 위한 북-중간 구체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관광철도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야 하는 북한은 사정이 다급한 반면 중국은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며 “철도 보수와 열차 배정 등 기반시설을 전담해야 하는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해놓고 뒤로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

● 北·中 상호원조조약 48돌 기념연회 개최(7/11, 조선중앙방송)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는 북한과 중국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8돌을 기념해 10일 평양 옥류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연회에는 북한측에서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백용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전춘식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측에서 학효비 임시 대리대사를 포함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11일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 상태에 놓이면 군사 지원에 나서도록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

● 中, 자체 대북제재 이행팀 구성(7/10, 연합)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의거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정부 당국자는 8일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제재전담반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외교부를 필두로 중앙은행과 세관, 기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내에서 대북 결의 이행문제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유관부처가 참여, 빠른 시간내에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제재)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6자회담 당사국과 기타 역내 국가들에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는 6자회담의 협상팀이 반드시 제재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경우) 6자회담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밝힘.



라. 북·러 관계

● 러, 北대사에 6자회담 복귀 촉구(7/9, 연합)

- 9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이 김영재 북한 대사를 만나 6자회담에 신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 이 자리에서 보로다브킨 차관은 “수많은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반도 핵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지난 2일 보로다브킨 차관은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

● 러, G8서 북한문제 거론할 것(7/7,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8일부터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7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 아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G8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중동 사태,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정치적 의제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과 중동 문제를 우선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3. 대남정세

● 인천-北 유소년 축구단, 中서 합동 훈련(7/12, 연합)

- 12일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따르면 축구단 소속 유소년 팀과 북한 대표급 유소년팀은 17일부터 18박19일 일정으로 중국 윈난성(雲南省) 쿤밍(昆明) 훙타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훈련하고 친선 경기를 12차례 벌일 예정
- 이번 인천-북한 유소년팀 합동 전지훈련은 인천시가 남북 경색을 완화하고 오는 8월에 개최 예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고자 추진, 이에 따라 북한팀의 중국 체재비와 왕복 항공료 등 전지훈련 비용 1억5천만원은 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예정, 인천팀의 훈련비용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지급할 예정

● 인천-남포 정기화물선 정상 운항(7/10, 연합)

-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인천과 남포간을 오가는 화물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항



- 주 1항차로 인천~남포를 오가는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는 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항에 입항, 10일 북에서 신고 온 화물을 내려놓고 북으로 갈 화물의 선적작업을 시작, 이날 화물선을 이용, 북으로 보낼 지원 물자에 대한 출항식도 인천항과 창고 등지에서 열렸음.

● 北, 개성접촉 결렬위기··무의미한 접촉(7/10,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남북간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남측이 향후 회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4차례의 회담 결과 “우리는 남측 당국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를 모독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오는 조건에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통해 협상의 방법으로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언급
- 담화는 남측이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개성회담에 나서 지난 제4차 회담에서 “마침내 대결적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하며 특히 제4차 회담 내용에 불만을 나타냈음.
- 이와 관련, 담화는 제4차 회담에서 남측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발언문을 근 한시간에 걸쳐 목청을 돋구어 읽어내려 간 광경은 과거 파쑈독재 정권시기 북남대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연상케 했다”고 주장하고,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류모씨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남측의 요구를 “생떼”라고 거부
- 담화는 자신들은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남측이 이 모든 노력과 성의를 무시하고 그에 정 반대되게 행동”했고 회담장 밖에선 “접촉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이는 남측이 북측에 “책임을 넘겨썩워 공업지구를 깨려는 생각”인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 담화는 “이러한 무의미한 접촉은 백번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접촉을 거듭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신이 덧쌓이고 대결감정이 격화되게 될 뿐”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과 공업지구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문제 해결서 몽골 역할론 부상” <WT> (7/12)

-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등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몽골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한국전쟁 당시부터 북한의 우방 역할을 해왔으며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이후에도 북한과 가까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이 북한과 미국 간 관계개선 등을 중재할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북한과 몽골의 관계는 최근 몽골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인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전과 다름 없이 유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북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몽골 방문이 알려지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관련한 흥미로운 관측들이 흘러나옴.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사흘간에 걸친 박 부부장의 몽골 방문은 공교로운 교통사고로 일정이 하루 늦춰지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음. 박 부부장의 방문은 수 개월전 몽골 군당국자들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국들은 이를 놓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 가능성에 주목했음.
- 미국은 몽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음. 미 국무부에서 오랜 한국 통을 역임하며 지난 2003~2006년간 주한 미 부대사를 지낸 마크 민턴은 “몽골은 6자 회담 당사국 모두와 고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몽골의 존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몽골 역시 양국관계 개선을 돕는 데 적극적임. 루브산반단 볼드 몽골 국방장관은 최근 WT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병영화돼있지만 연착륙 정책을 시도한다면 생산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 기회가 있다”고 말했음.

● 한·중 6자수석, 13일 서울서 회동(7/10)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3일 서울에서 회동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힘. 러시아, 미국, 일본을 순방하고 12~14일 방한하는 우 부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 본부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을 비롯한 북핵 문제 현안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우 부부장은 또 한·중 6자수석 협의가 끝난 뒤에는 권총락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함. 6자회담 의장인 우 부부장은 지난 2일부터 러·미·일 3국을 돌며 각국 6자 수석대표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함.

● 러시아, 北 대사에 6자회담 복귀 촉구(7/9)

-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재차 촉구함. 9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이 김영재 북한 대사를 만나 6자회담에 신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함. 이 자리에서 보로다브킨 차관은 “수많은 위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한반도 핵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이번 만남은 북한 대사관 측의 요구로 이뤄졌고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 “中, 미·중·일 협의 불참 美에 통보” <RFA>(7/9)

-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 일본, 중국간 3자협의를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이 방송은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불참 결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번 3자회담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개입해온 미·일·중 3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옴. 이번 회동에는 미국의 앤메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실장, 일본의 벳쇼 코로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중국의 리유칭(樂玉成)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불참으로 3자협의체의 가동이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중국의 불참 결정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등장한 새로운 집단지도체제와 불협화음을 낼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집단지도체제를 이끄는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연구소장도 “중국 지도부가 최근 들어 잇달아 미국 관리들과 만난 뒤 미국 측에 전달한 입장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나. 미·북 관계

● “美, 北미사일 발사로 정보수집-MD시험”(7/12)

- 미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달 들어 11발에 이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얻은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우선 일본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에 배치되고 해군 함정과 위성 등에 장착된 미국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철저히 시험하고 작동이 잘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미 하와이 일간지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상과 해상,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각 명확한 이미지들을 만들었음. 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들을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것을 또 다른 중요한 성과라고 전했다.
- 미국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정확히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오래된 레이더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얻은 정도에 근접하는 정보는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지만 미국은 인공위성과 U-2정찰기 등을 통해 이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U-2정찰기의 경우 디지털 사진을 전송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음.

● “남북이산가족 문제 美의회 청문회 추진”(7/12)

- 미국 연방하원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미국령 사모아) 의원은 북한에 가족과 친척을 둔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를 다룰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11일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실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최근 재미 이산가족들을 인터뷰해 ‘잃어버린 가족(Lost Family)’이라는 책을 발간한 미 버지니아의 한인 고교생의 모임인 ‘재미이산가족의 목소리(VODKF)’회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
-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의회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한인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 이산가족 문제를 널리 알리는 한편 유엔에도 탄원서를 제출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음.

● “北 무기수출 시도 계속할 것”<WSJ>(7/12)

- 강남호의 회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과 여타 대량살상무기(WMD)관련 물자의 수출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1일 보도함.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미사일 또는 다른 불법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강남호가 회항했지만 이제 문제는 ‘북한이 다음에 무엇을 시도할 것이냐’라면서 이렇게 전함.

- 강남호는 유엔결의 1874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었다면서 이는 북한의 무기 무역을 금지한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함. 신문은 강남호의 회항 이유가 미얀마의 거부 때문일 수도 있고, 연료 보급을 위해 싱가포르에 들렀다가 검색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했거나 미국 군함이 실제로 승선할 것을 우려한 때문일 수도 있다고 밝힘.
- 신문은 그러나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등의 무기를 수출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함. 이런 수출이 바로 김정일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달러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임.
- 신문은 이어 과거 북한이 대(對)이란 수출시 중국을 통과하는 항공 경로를 이용했던 적이 있다면서 해상 통로가 봉쇄된 북한이 항공을 통해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함. 신문은 북한이 이런 항공 수출을 다시 시도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찬성했던 중국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지를 테스트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정착 탈북자 91명으로 늘어<VOA>(7/11)

- 탈북자 9명이 지난달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추가로 입국함에 따라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91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방송은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별 난민현황 자료를 인용, 9명 가운데 4명은 부부와 20대 초반의 아들 2명 등 일가족으로 지난달 3일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입국해 미 북동부 지역에 정착했으며 다른 5명 가운데 3명은 태국에서 입국한 모녀 등 여성 3명으로 미 중서부 지역 등에 정착했다고 설명함.
- 방송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은 올해 초엔 뜸하다가 지난 4월이후 14명이 입국하는 등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함. 탈북자들은 2006년 6명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 미국내 10여개 도시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 1명은 지난해 암으로 숨졌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클린턴 “北, 억류여기자 사면해야”(7/1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은 억류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사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힘. 그는 “우리가 현재 원하는 것은 이들 젊은 여성 2명이 북한 법에 따라 사면돼 그들의



가족 품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두 여기자와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의 아닌 과오에 대해 북한이 사면을 통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함.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여기자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한 바 있음.
- 클린턴 장관과 국무부 대변인의 이 같은 사면 요청은 이들 여기자의 북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온 인도적 차원의 석방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北역류 유나리 7kg 빠져..건강 걱정”(7/10)

- “언니가 극도의 스트레스에다 최근엔 몸무게가 15파운드(약 7kg)나 빠졌다고 해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습니다” 북한에서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역류된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 유나리의 여동생인 지나 리(Jina Lee)는 9일 오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열린 석방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통화를 통해 알게 된 유나리의 근황을 전하면서 걱정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했음.
- 그는 “지금까지 언니와 두 차례 통화했는데 그때마다 ‘잘 지낸다’고는 말했지만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음. 세 자매 중 막내인 지나 리는 둘째 언니인 유나리가 북한에서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 통화를 했다고 함.
- 그는 유나리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무런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왔으며, 대개 밤 10시~10시30분(미국 서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2시30분)께 15분 가량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음. 유나리의 남편인 마이클 셀데이트는 지금까지 세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나 리는 “언니와 (중국계 여기자) 로라 링은 평양으로 압송된 이후 출근 한 곳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일상생활에서 북한 측이 잘 대해주고 있고 음식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 국경을 넘어선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로라 링은 평소 복부 괴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이며, 기력이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음.
- 지나 리는 “언니와 로라 링이 역류된 지 114일을 넘기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직접 북한과 대화에 나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 “北 핵실험 불구하고 더 약해져”(7/10)

-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이번 2차 핵실험은 김정일이 시간은 자신의 편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9일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애틀랜틱카운슬 공동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중·단기 전략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함.
-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실험은 김정일이 시간은 자신의 편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함. 그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위기 고조의 중간 사이클에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강조함. 그는 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이 방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 그는 북핵 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관련, “미국과 점점 의견을 좁히고 있지만 충분할 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무시아 알라가파 미 하와이 소재 동서센터 수석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정권 교체가 두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말함.
- 이와 함께 그는 “건설적인 포용은 또 다른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노력을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함. 이 밖에 앨런 롬버그 헨리스팅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제재, 협상,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등의 3가지 선택 옵션이 있다고 밝힘. 그는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을 봉쇄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등 경제지원을 보상으로 영변 핵시설의 재폐쇄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관측함.

● 오바마 “강남호 회항, 긍정적 진전”(7/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금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 강남1호의 북한 회항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의 결과라면서 높이 평가함. 러시아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노력으로 북한 선박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봤다”면서 “이는 긍정적 진전(positive step forward)”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2~3년 전이었더라면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 체제와 관련해 우리는 매우 강한 일치를 봤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명백히 북한은 매우 예측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은 권력 승계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부터 찾아내는 정보는 매우 확실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



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BS방송에도 출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어떤 전쟁도 임박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는 “그들(북한)은 미국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빚으면 제압당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안보리 “北미사일 결의 위반” 비난(7/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함.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간다의 루하카나 루군다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언론 구두설명(press remarks)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비난하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함.
- 이날 3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루군다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이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함.
-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그러나 추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음. 이날 발표된 의장 구두설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공식 발표문 등과는 달리 안보리 공식 기록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이며, 의장이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발표문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고 지난달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이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일일이 대응하면 안보리 조치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서방 외교관들은 좀 더 공식적인 발표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이 ‘구두 설명’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회의 내내 발표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극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고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안보리 의장의 대북 비판 언급을 환영함.

-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가 조용하고 책임감 있게 현 결의안 이행에 초점을 맞춰 일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결의안을 이행하면 매우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일본은 미안마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에 유엔의 대북 결의안 이행을 요청했으며 북한의 의심선박인 강남호가 항로를 변경한 것은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 현재 유엔 제재위원회는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제재 이행을 위해 추가 제재대상 북한 기업들과 인물에 대한 명단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짐.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P5+2(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주요국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 참가국들이 의견 일치를 봄. 이 주요국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았음.
- 유엔의 한 외교관은 “주요국 회의는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해 주요국들 간 합의를 위한 것”이라며 “중·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전체회의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회의 불참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北中 접경지대서 매일 총성”(7/12)

-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는 거의 매일 탈북자 저격 등을 위한 총소리가 들린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기 ‘평양의 수족관 :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10년’의 저자인 탈북자 강철환씨의 발언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음.
- 신문은 강씨가 “총성은 북한 인민군의 탈북자 저격, 뇌물을 받고 탈북을 눈감아 준 군인들을 공개처형하는 소리”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신문에 따르면 북한 내의 식량난은 한층 심각한 상태여서 탈북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늘 것으로 보임.
- 강씨는 이런 배경에 대해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 식량난은 극히 악화해 있어 주민은 ‘아사냐 탈북이냐’의 양자선택에 몰려 있다. 인민군은 30만명을 접경지대에 배치해 탈북자들을 저격하고 있다”고 산케이에 말했음.
- 이어 산케이는 강씨가 “중국 측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없으면 100만 명이 넘어올 것”이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주민이 달아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중국의 강제송환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음.
- 강씨는 “식량난 때문에 군(軍)이 곡창지대 등으로 이주해 주민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고 있다. 지난해 수확 전부터다”라며 “군과 주민



간 생존을 건 전쟁이 시작됐다. 주민은 권력층에 증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中 룡징서 무장한 北 탈영병 검거(7/11)

- 무장한 채 탈북해 중국의 야산에 은신해 있던 북한 병사가 최근 중국의 변경 수비대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11일 현지 언론 중광망(中廣網)에 따르면 지린성(吉林) 변경 수비대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께 북-중 접경지대인 룡징(龍井)시 두만강 부근 한 야산에서 탈북한 북한 병사를 체포함.
- 체포 당시 그는 오랫동안 굶주린 탓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했으며 북한의 58식 자동소총 1정과 실탄 30발, 단검 등을 휴대하고 있었음. 올해 19살로 2년 전 군에 입대한 그는 지난달 초 소속부대 상관을 폭행하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 온 것으로 밝혀짐. 지린성 변경 수비대는 지난달 15일 저녁 룡징시 카이산툰(開山屯) 마을에 무장한 북한 병사가 나타나 식량과 의복 등을 빼앗아 야산으로 도주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이 일대를 수색함.

● 中투먼-北청진 관광철도 개통 지연(7/11)

- 북한과 중국간 최초의 관광철도 개통이 당초 예정보다 2개월째 늦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1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 5월부터 운행키로 합의했던 지린(吉林)성 투먼(圖們)과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청진-칠보산을 잇는 북-중 간 관광철도가 지금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음.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투먼과 안투, 단둥 등에서의 북한 변경관광을 3년만에 재개하면서 북-중간 최초로 투먼-칠보산 간 관광철도를 운행키로 북한과 합의함.
-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지난 5월 북한 내 사무소 설치, 관광 열차 제공, 철도 보수 등에 관광철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그러나 투먼의 한 여행사는 “협약 체결 이후 철도 운영을 위한 북-중간 구체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관광철도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야 하는 북한은 사정이 다급한 반면 중국은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며 “철도 보수와 열차 배정 등 기반시설을 전담해야 하는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해놓고 뒤로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다른 전문가는 “칠보산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풍계리와 직선거리로 35km에 위치해 있고 미사일 발사지역인 무수단리와는 불과 20km 거리에 있다”며 “핵 실험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이 냉랭한데다 관광지가 북한의 ‘위험지역’과 가까워 개통되더라도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를 늦추는 것 같다”고 함.



● “中, 자체 대북제재 이행팀 구성”(7/10)

-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의거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정부 당국자는 8일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제재전담반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외교부를 필두로 중앙은행과 세관, 기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표단을 만났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중국 정부내에서 대북 결의 이행문제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유관부처가 참여, 빠른 시간내에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함.
-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제재)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것이며, 6자회담 당사국과 기타 역내 국가들에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는 6자회담의 협상팀이 반드시 제재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경우) 6자회담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밝힘.

● 北, 군용 추정 中 트럭·지프 대량 반입(7/6)

- 최근 한 달 사이에 군용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트럭과 지프 500여대가 북한에 대량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됨. 6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 8시께 변호관을 달지 않은 국방색 트럭 30여대가 열을 지어 단동의 ‘중조우의교(中朝友宜橋)’를 넘어 북한으로 건너가는 것이 목격됨. 주말과 휴일에는 중국 해관(海關)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인 이날 차량이 통관된 것은 극히 이례적임.
- 이에 앞서 지난달 12-15일에도 단동을 통해 ‘동풍(東風)’ 브랜드 국방색 트럭 320대와 ‘베이징’ 브랜드 군용 지프 50여대가 북한으로 건너가는 것이 포착됨. 목격자들은 이 차량들이 “변호관을 달지 않은 새 차로 아무것도 신지 않고 있어 화물 운송 목적이 아닌 수출 차량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함.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비슷한 시기 북한 측이 창춘(長春)의 길림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지에팡(解放)’ 브랜드 중고 군용 트럭 100여대를 구입, 단동을 거쳐 들여갔다고 밝힘.
- 한 대북 무역상은 이와관련, “북한은 국방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량 외관만 봐서는 민간용인지 군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국영 기업 등에서 수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함. 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간혹 10-20대가 북한으로 건너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량으로 넘어간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북한에서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수입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곳은 군대뿐이어서 군용차량으로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라. 일·북 관계

● 日 방위상 “北, ICBM 발사 가능성”(7/6)

-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6일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데 이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함.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계감을 표시하면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 또는 일본을 사거리에 넣고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7발로, 남동부의 깃대령에서 발사돼 낙하 추정지점이 모두 북한이 사전에 향해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던 연안부의 동해쪽이라고 지적함.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입각해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에 관련된 자금의 이전을 방지하는 제재 조치의 실시를 승인, 7일부로 고시하기로 함. 구체적으로는 외환법에 의거해 일본에서 해외 송금과 현금의 반출, 금융기관에 의한 용자 등을 제한하게 됨.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일본 독자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함.

마. 기타

● “北, 남측 165만명 개인정보 해킹 입수”(7/12)

-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5년간 인터넷 해킹을 통해 최소 165만명에 달하는 남측 인사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간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 핵심 정보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남측 인사의 수는 확인된 것만 약 165만명에 달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추정 인원까지 합치면 약 2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의심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무차별적으로 입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주로 군인공제회, 사관학교 동기회, 연구소 등 안보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주요 대학 동창회 사이트 등을 집중 해킹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등급별로 남측 인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주요 기관에 소속된 인사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정부보고서를 빼내가고, 일반 개인은 이번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좀비 PC’ 등과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설명임.



- 북한은 특히 최근 우리 정부기관들이 내.외부 전산망 분리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한 해킹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보안이 취약한 개인 PC에 해킹코드를 심어놓은 뒤 정부 관계자 등이 사무실에서 쓰는 USB 저장장치를 개인 PC에 연결할 경우 이를 침투시켜 사무실 PC에서 다시 사용하면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식임.
-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통제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개인정보 절취 현황을 파악한 뒤 해킹 경로를 추적해서 복측 소행으로 확인한 결과”라면서 “북한은 인터넷 해킹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중국, 인도 등 제3국에서 해킹 시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면서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에서 이 같은 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정원은 또 이번 디도스 공격이 중국 선양(瀋陽)을 통해 감행된 것으로 판단, 증거물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은 북한 인민군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가 지난달 7일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조선 괴뢰통신망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동명정보화대 컴퓨터 및 한국정보진흥원에 대한 모의공격과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에 대한 1차 공격을 거쳐 이번 디도스 본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국정원, ‘北 남한통신망 파괴명령’ 포착”(7/11)

- 정보 당국은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치밀한 사전 전략에 의해 진행된 단서를 잡고 근원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은 10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가해진 지난 7일 디도스 공격에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인민군 소속 해커조직에 남한 통신망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사실을 포착했으며 실제로 지난달 30일 첫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음.
-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인 110호 연구소에 지난달 7일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조선 괴뢰통신망을 파괴하고 그 배후를 위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전략문건을 국정원이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문건에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과 통신망 파괴 외에도 각종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해보라는 지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 국정원은 북한이 이달 7일 본공격에 앞선 지난달 30일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했으며 이는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인 해커조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평양 고사포사령부의 컴퓨터 명령체계와 적군 전파교란 등을 연구하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121소(부)를 1998년 해킹과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기술정찰국(110호 연구소)로 확대개편했으며 이 외에도 유사 기능을 하는 해커조직이 국가보위부 산하에 수 개가 더 있을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음.

● 北김영남, 비동맹회의 참석차 이집트행(7/11)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평양을 출발, 베이징을 경유해 이집트로 떠났음.
- 김영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도착, 최진수 북한 주중 대사의 영접을 받고 시내에서 잠시 머문후 다시 서우두 공항에서 와 이집트행 여객기로 갈아탔음.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 외교부가 마련해준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으나 중국 측 인사와의 접촉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음.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NA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하고 김 위원장이 출국하는 공항에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형준 외무성 부상,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와 중국 임시대리대사가 전송했다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중순경에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싱가포르를 순방했었음.
- 이번 NAM 정상회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박인국 유엔대표부 대사가 참석함.
- 북한은 1975년 8월25일 비동맹운동에 가입한 뒤 비동맹운동 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음.

● 남성욱 소장 “北김정일, 화 잘내고 환각증세설”(7/11)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발병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특히 노여움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며 부정적인 보고에 참을성이 적어진다는 관측이 있다”고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말했음.
- 남 소장은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가 오는 13일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는 통일교육강좌 발제문에서 “2009년 상반기 김정일의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특징적인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또 “프랑스 등 일부 외국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김 위원장의) 환각증세설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으나 출처는 밝히지 않았음.
- 그는 북한이 남한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국민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점, 중국과 러시아를 전례없이 직설적으로 비난한 점, 김 위원장이 대내 정책 결정과정에서 ‘투박하고 밀어붙이기식’의 강공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군과 안전보위 계통의 강경분자들이 현재 북한 정책 결정의 흐름을 주도하는 점 등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후유증을 방증하는 현상들로 봤음.
- 한편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건설중인 미사일 발사기지가 “금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며 “이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없이 필리핀 인근 공해상까지 3천km의 사정 거리 실험이 가능하다”고 남 소장은 말했음. 이 경우 미사일은 “한국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상공을 통과해 일본 난세이 제도의 이시가키 섬 인근을 지나갈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음.

● <北사이버전 전담부대 ‘110호연구소’는>(7/10)

-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이 지목한 북한 인민군 산하의 ‘110호 연구소’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정찰국’을 일컫는 것으로 전해졌음.
- 국정원은 10일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로, 이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사이버 관련해서 훈련이 잘된 부대”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0호 연구소, 즉 기술정찰국은 1990년대 초부터 평양 고사포사령부의 컴퓨터 명령체계와 적군 전파교란 등을 연구하던 인민무력부 정찰국 121소(부)를 1998년부터 해킹과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한 북한군사 전문가는 “110호 연구소는 기술정찰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군의 00사단을 00부대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경우”라며 “이 같은 사이버 관련 조직이 110호 연구소 외에도 국가보위부 등에 몇개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110호 연구소 부대원들은 2000년 말까지 해킹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2001년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사이버전(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군사관련 기관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빼내거나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것이 이 기관의 주임무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음.
- 이 부대는 주로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과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등의 졸업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요원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지휘자동화대학은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매년 바이러스 전문요



원과 기술요원 각 10여명, 일반 컴퓨터 요원 80여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 중 연간 10여명이 110호 연구소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자동화국은 사이버전 해커 요원 운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전문 해커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지휘자동화국 산하에는 장교 50~60여명으로 구성된 해킹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이 포진한 31소,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2소,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발중인 56소가 있으며, 이들은 평시 해킹임무에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인천-남포 정기화물선 정상 운항>(7/10)

-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인천과 남포간을 오가는 화물선은 평소와 다름 없이 정상 운항하고 있음. 주 1항차로 인천~남포를 오가는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는 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항에 입항, 10일 북에서 신고 온 화물을 내려놓고 북으로 갈 화물의 선적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화물선을 이용, 북으로 보낼 지원 물자에 대한 출항식도 인천항과 창고 등지에서 열렸음.
-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는 오후 4시께 인천항 1부두에서 북한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전해질 교과서 인쇄용지 220t을 북한으로 보내는 출항식을 가졌음.
- 앞서 오후 3시에는 대북지원단체 ‘어린이어깨동무’와 중외제약이 공동으로 인천항에서 수액제 27만 병(26TEU)을 북한의 병원으로 보내는 출항행사를 개최했음. 이들 단체가 지원한 종이, 수액제는 의류 원·부자재 등과 함께 트레이드포춘호에 실려 11일 오전 9시께 북한으로 출발함.

○ “北주재 브라질 초대 대사 평양 부임”(7/9)

- 북한 주재 초대 브라질 대사가 최근 부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일간 폴라 데 상파울루가 8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초래된 국제사회의 긴장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중국 베이징에 머물던 아르날도 카힐료(71) 평양 주재 초대 브라질 대사가 지난 3일 북한에 입국함.
- 브라질 외무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카힐료 대사의 부임을 더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북한 입국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함. 카힐료 대사는 평양 부임 후 첫 업무 중 하나로 최근 북한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전문을 브라질 외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관은 당초 지난 5월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부임을 연기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카힐료 대사는 같은 달 24일부터 줄곧 베이징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 머물러 왔음.



- 카힐료 대사는 평양 부임 초기에는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오스카르 니마이어(101)의 작품세계를 다룬 전시회나 브라질 영화제 등 주로 문화행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에는 지난해 말 현재 3억8천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한-브라질 교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힐료 대사는 외교관 경력 37년 가운데 10년을 홍콩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보냈다. 또 공산정권 시절의 폴란드(1967~1971년)와 동독(1973~1974년), 라오스(1996~2000년) 대사를 역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재 대사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음.
-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미주 지역에서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평양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임. 북한과 브라질은 지난 2001년 3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은 2005년 브라질리아에 대사관을 개설했음.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을 추진해 옴.

● 美재무차관, 홍콩금융관리국 방문(7/9)

- 미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나 불법 활동에 자금을 대려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홍콩 규제 당국자들과 만남. 사실상 홍콩의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HKMA 관료들과 만났다고 밝힘. HKMA는 그러나 이날 이뤄진 논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는 것은 거부함.
- 레비 차관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기술을 사거나 팔려고 금융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구상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번주 중국과 홍콩을 방문함. 레비 차관은 지난 6일 중국에 도착했으며 8~10일 중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분야 간부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음.

● 泰, 북한 국적 6명 불법입국으로 체포(7/8)

- 태국 북부의 파야오주 경찰이 8일 오전 불법 입국혐의로 북한 국적의 남자 5명과 여자 1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신문인 방콕 포스트가 보도함. 파야오주 무양 구역 경찰 책임자인 폰 콘 몽콘 삼파와폰은 이들이 적절한 여행 서류없이 버스로 이동하다 검문소에서 체포됐다고 밝힘. 체포된 사람 가운데 여성은 60대이고 남성들은 20~40대 인 것으로 파악됨.

● “泰외무차관, 北외무상에게 ARF 참가요청”(7/8)

- 파니크 위키셋 태국 외무차관이 이달 말 푸켓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 지난 6일 방북,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현지 일간 방콕 포스트가 8일 보도함. 방콕



포스트는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파니크 차관이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6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 외무상에게 ARF 참석을 요청했다고 전함. 파니크 차관은 박 외무상이 참석할지 아니면 대리인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 한국 정부 소식통도 지난 7일 태국 정부가 외무부 고위인사를 북한에 파견, 북한을 ARF에 초청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파니크 차관은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 등 태국 정부는 북한의 ARF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ARF에서 6자 회담을 계획하는 것은 태국의 의무이지만 6자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함.
- 그는 또 “ARF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이유 등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함. 박 외무상은 미사일 실험과 관련,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미사일 실험을 할 권리가 있고 자기 방어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말을 했다고 파니크 차관은 덧붙였음.
- 북한은 그동안 아세안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ARF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에서는 비공식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 바 있음. 2004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ARF에서는 당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20여분간 양자회동을 갖기도 함.

● “中, 한·일 핵무장시 대북영향력 행사”(7/7)

-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는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제임스 프리스텝 미국 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7일 용산 캐피탈호텔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한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전략균형’ 국제심포지엄에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아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대북 영향력 행사를 보류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북한의 현재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국과의 통 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대북 압박을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수이지만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북한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고 핵만 포기시키는 비핵화 방안을 찾기 전엔 국제사회의 압박에 비협조할 것”이라고 말함. 프리스텝 교수는 “북핵에 위협을 느낀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동맹정책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고 함.
- 그는 “한·미 양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해 단기적으로 북핵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북핵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이런 전제에서 한·미·일은 중장기적인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은 지속할 것이고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핵확산을 억지하는 한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총체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함.

- 나루시게 미치시타 일본 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최근 일본을 위협하는 노동미사일을 320기까지 배치했다”며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거나 지도자가 정권 붕괴 등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대량파괴 등을 목적으로 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는 “일본은 F-2전투기, 공중급유기,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초보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세적인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왕양썩 대만 국방대 교수는 “재래전력 차원에서는 한국이 우세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전략적 차원에서는 북한이 우세해진다”며 “재래식 전력은 역내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전략 무기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이런 상황에선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이익과 상충될 때 중국과 입장차를 보였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대북 강경정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중국의 딜레마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봄.

● 美-말레이시아, ‘北계좌’ 대응 협력키로(7/7)

-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6일 금융제재를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협의함.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이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BNM), 재무부, 총리실 및 외무부 관계자들과 잇단 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골드버그 조정관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유엔 결의 1874호는 (화물) 검색과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조항 및 금융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협의회도 이 결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힘. 골드버그 조정관은 미국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의심스러운 계좌를 발견해 동결 등 봉쇄 조치를 추진중이라는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한 잇단 질문에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 말하겠다”고 언급,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전체 국제금융시스템을 안전하고 위험이 없도록 확실히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이는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함. 그는 “원칙에 벗어난 금융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말레이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면서 “말레이



시아 및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또 미 대북제재 전담반의 말레이시아 방문 목적과 관련, 몇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말레이시아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금융분야 전문가들과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평가함.

-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어 “유엔 결의 이행에 모든 역내 국가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견했다”면서 “어떻게 이를 이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함.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과 확산 활동들에 대해 많은 국가들과 정보를 계속 공유할 것”이라면서 “어떤 거래나 어떤 금융 활동도 합법적이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 아세안(ASEAN)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히면서 미국과 말레이시아간의 비확산 문제를 포함한 파트너십 증진의 중요성도 강조함.
-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의 아니파 아만 외무장관은 확실한 정보를 받는다면 말레이시아는 북한 계좌 봉쇄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그는 북한 계좌 봉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미국)이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潘 총장 “北 대화채널 폐쇄 심히 우려”(7/6)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5일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의 채널들을 닫아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히 우려한다”고 말함. 반 총장은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지금 모든 대화 및 소통의 문을 닫고 있다”면서 “그것이 상황 자체에 더해 내가 심히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는 “깊이 유감스럽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반 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여주었다”면서 “북한은 그런 식의 도전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 아니라 유엔의 메시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함.



2. 주변국 관계

가. 한·미 관계

● 스티븐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조율해야”(7/12)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1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이 중요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아직 한국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한·미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온 전통이 있으며 특히 평화적인 민간의 이용문제에 대해 논의해왔고 최근 한·미 정상간 공동비전에도 나와있다”면서 “(개정협상은)과학도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 서로 조율하고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 명백히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장거리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제재를 추진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멀티 트랙 접근’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그는 미국의 제재대표단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음을 상기시키며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이 문제(안보리 결의 이행)를 논의했고 유엔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협의도 했다”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복귀할 문을 열어 놓았다. 이런 멀티 트랙 어프로치’가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핵 6자회담 문제에 언급, 스티븐스 대사는 ‘과정과 내용’의 측면에서 유용한 협상틀이라고 평가함. 그는 “6자회담은 지난 수년간 당사국들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용적으로도 9.19 공동성명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며 이런 목표를 미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함.
- 스티븐스 대사는 ‘향후 6자회담 틀내에서 북미 양자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는 식으로 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함. 이른바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 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역내 국가들, 특히 5자 당사국과 계속 협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함. 북한의 핵보유국 지향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조속히 NPT(핵무기비



확산조약)에 복귀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문제에 언급,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 당국의 사면과 즉각적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해외 미국시민들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사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2012년 4월로 정해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지금의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취해지는 조치인지, 그럼으로써 한·미동맹의 방위태세가 더 강해지느냐는 문제로, 그 기준은 현재 보다 더 낮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현재까지 양국은 잘 해왔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길을 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함.
- 그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지난 4월 리처드 홀브루크 대사가 방한해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지원이 어떤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함.

● 캠벨 美국무차관보 18일 방한<RFA>(7/11)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 후 첫 아태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오는 18일-20일 3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캠벨 차관보는 하와이(13-15일), 일본(16-18일), 한국, 태국의 방콕(21-22일)을 방문하고 22,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클린턴 힐러리 미 국무장관을 수행해 참석함.

● 한·미 “北 우라늄농축 증거 포착 안돼”(7/8)

-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고 주장한 지 25일째를 맞았지만 북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한·미 정보당국은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영변과 평북 천마산 등 북한지역 여러 곳을 정밀감시 중임.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8일 “지난달 13일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 이후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여러 곳을 정밀 감시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농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에 워낙 많은 지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증거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농축작업에 착수했다면 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일치된 평가”라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中 우다웨이 외교 부부장 오늘 방한(7/12)

- 북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일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순방길에 오른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2일 마지막 순방국인 한국을 찾음.
- 이날 오후 입국하는 우 부부장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과 북핵 현안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그는 이어 권종락 1차관을 예방한 뒤 14일 오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우 부부장은 앞서 러·미·일 3국을 돌며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및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유엔결의 이행·대화재개 병행(7/6)

-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대화재개 노력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동,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2차 핵 실험 강행 이후 북핵 문제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함.
- 이 당국자는 “양국은 우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주변 정세 안정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해 논의했고 동시에 대화과정의 복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말함. 그는 또 “5자 협의를 (토대로) 6자회담 과정을 복원하는 문제도 아울러 논의했다”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한·러 정상, ‘5자협의’ 긴밀협력 합의(7/10)

-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고 있는 G8(선진8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참여하는 ‘5자협의’에 대해 긴밀 협력하기로 함.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은 이날 이탈리아 중부도시 라퀼라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5자협의 등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향후 조치 등 북핵 문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등 상황 악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현 상황 하에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양국간 경제협력과 관련,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서 캄차카 유전개발, 극동지역 배관건설 사업 참여 등 에너지 자원분야의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모멘텀을 활용해 양국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두 정상은 오는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함.

마. 미·중 관계

● 이번엔 美재무차관 방중..대북금융제재 논의(7/7)

-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투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중국을 방문,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한다고 미 재무부가 6일 밝힘. 레비 차관은 이날 중국으로 떠나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과 홍콩에 머물며 중국 정부 당국자들 및 민간 분야 인사들과 협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특히 이번 방문은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끌고 있는 대북 제재 전담반의 지난주 중국 방문에 뒤이은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레비 차관은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잠정 지정함으로써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시켰던 주인공으로,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금융 제재 방안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음.
- 레비 차관의 중국, 홍콩 방문과 이에 앞선 골드버그 조정관의 중국, 말레이시아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중국, 홍콩 및 동남아권에서 대북 금융봉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은행들과 기업을 이용해 미사일 및 핵 기술을 사고 파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레비 차관 일행이 협의할 것이라고 전함. 앞서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외무부 등과 연쇄협의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중국과의 대북제재 이행 협의가 이번주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계속 진행될 것임을 밝힘.



바. 미·일 관계

● 美·日 “北에 압력 지속”(7/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8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힘. 마이크 해머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전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3월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이날 G8 정상들과의 만찬 과정에서 공개했으며, 귀국 직후 이의 공식 초청 서한을 세계 주요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마크 리퍼트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말함. 리퍼트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테러가 미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핵물질의 암거래 및 색출, 차단문제를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함.

사. 미·러 관계

● 메드베데프 “美 MD합의 실패엔 로켓배치”(7/11)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과 관련, 러시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폴란드 인근에 로켓을 배치할 것이라고 10일 밝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일 우리가 MD 현안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따른 결과가 어떨지 잘 알 것”이라고 말함.
- 메드베데프의 이날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 5~7일 러시아 방문을 즈음해 MD시스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영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 시키는 것에 반대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의 모든 결정을 취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는 이 문제에 아주 강경한 태도였지만 현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음.

● <푸틴-오바마 첫 만남 화기애애>(7/7)

- 러시아 공식 방문 이틀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 최고 실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첫 회동,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푸틴 총리와의 조찬 회동을 위해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레보에 자리한 푸틴의 별장을 찾았음. 이곳은 푸틴 총리가 외국 귀빈이 오면 즐겨



초청하는 곳으로, 주변에 모스크바 강이 흐르고 자작나무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전통 러시아 스타일의 저택임. 오바마는 푸틴 총리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했고, 푸틴은 “당신을 알게 될 기회를 얻게 돼 반갑다”고 인사를 주고받았음. 특히 러시아 언론들은 두 지도자가 언제 서로를 비판했느냐는 듯 시종 온화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푸틴 총리가 양국 관계를 과거의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푸틴 총리가 여전히 한쪽 발을 과거에 걸쳐두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러자 푸틴 총리는 즉각 국영 TV에 나와 “나는 안짱다리가 아니며 두 발로 앞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반격했음.
-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두 사람 모두 따뜻한 말을 건네기에 바빴음. 푸틴 총리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오바마 대통령을 믿고 있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총리가 (전임) 대통령으로, 현 총리로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음. 오바마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으며 모든 문제에 의견을 같이할 수는 없지만, 양국 관계를 더 강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좋은 기회였다”고 말함.
- 이어 “양국이 상호존중과 협의를 통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 진전에 자신감을 보였음. 1시간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두 지도자는 전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양국이 이견을 보인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러 정상, “관계 재설정 합의”(7/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양국 간 관계 ‘재설정(reset)’에 합의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 재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공통 이익의 영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특히 그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솔직하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친근감을 표시함.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러시아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이었지만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며 “이는 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함.

● 미-러, 핵탄두 감축 합의(7/7)

- 미국과 러시아가 6일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1천500~1천675개로 감축하기로 합의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위한 초안의 양해 각서에 서명함.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새 협정이 발효되고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 수를 1천500~1천675개로 줄이기로 함.

- 또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이기로 합의함. 오는 12월 5일 효력을 상실하는 START-1은 양국이 6천 개의 핵탄두와 1천600기의 ICBM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1일 현재 러시아는 3천909개의 핵탄두와 814개의 각종 발사 수단을, 미국은 5천576개의 핵탄두와 1천198개의 발사 수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정치적 합의 성격의 양해 각서에 서명한 양국 정상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무기감축 후속 협정서를 START-1 시한 만료전 마련해 서명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조약은 양국 안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략 공격 무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새 조약에는 효과적인 검증 조치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힘. 또 이날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자국 영토(영공)를 이용한 미국의 무기, 군사 장비, 병력 이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군사 협력 협정에 서명함.
- 협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 측에 영공 통과료를 내지 않고 병력과 무기를 실은 자국 군용기 4천500대(연간)를 아프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됐음. 앞서 올해 초 러시아는 열차를 이용한 비군사 물자의 자국 영토 통과를 허락했었음.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단지 양국 정상은 MD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양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란 등의)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분석을 수행하기로 합의함.

● 오바마 “러시아와 북한문제 건설적 논의”(7/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핵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면서 “우리가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합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1874호) 채택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또 “이란 역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제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을 포함한 21세기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 등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합의했다”면서 “러시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군사장비 수송을 허용하는 협정에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아. 기타

● **李대통령 “한·EU FTA 협상 타결 기대”(7/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한·EU FTA 협상 타결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국제교역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EU 133조위원회 회의에서 한·EU FTA 협상단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으로, 한·EU 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됨.
-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1990년대 초부터 불거진 북한 핵 문제는 그간 협상을 통한 합의와 파기의 과정을 반복해왔는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현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남북한 협력을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진솔한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특히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로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유지해오으로써 한반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라며 “스웨덴이 EU 의장국으로서 EU 국가들 전체의 뜻을 담아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방글라 이달 중 원전협력 체결(7/11)

- 러시아-방글라데시 원자력 협력협정이 이달 중 공식 체결될 것이라고 11일 러시아 관영 뉴스통신 리아 노보스티가 방글라데시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방글라데시 정보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최근 자국 내 몇 개 원전 시설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왔다”며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이 끝나면 이달 안에 협정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 로스아톰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에너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음. 전력난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는 루푸르시에 15억~20억달러를 들여 2017년 가동 목표로 2기의 원자로를 갖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며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 기술 등을 전수할 것으로 알려짐.

● 韓·伊정상 “한-EU FTA 조속마무리 노력”(7/10)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협상에 들어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음.
- 이 대통령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중부도시 라퀼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협상 및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돼 지난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EU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음.
-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음.
- 두 정상은 또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 두 정상은 양국관계가 1884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한 뒤 올해 9월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을 통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성화되고 실질협력이 확대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음.

● 한·캐 “국제사회 단합대응통해 北비핵화”(7/10)

-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사회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단합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양국 정상은 이날 이탈리아의 중부도시 라퀼라의 G8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자원 및 저탄소 녹



색성장 등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함.

- 아울러 다양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G20 의장국인 한국과 G8 의장국인 캐나다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한·호주 정상 “북핵 해결 지속협력”(7/10)

-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함.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최근 도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함.
- 두 정상은 또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에 의견을 같이함. 이 대통령은 호주 정부 주도로 8일 개최된 국제탄소포집저장구상(GCCSI) 출범식이 녹색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바이오 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등 청정석탄 기술(석탄 가스화 및 액화 기술등)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G8정상, 李대통령제안 ‘MEF워킹그룹’ 채택(7/10)

-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MEF(기후변화주요국회의) 워킹그룹(실무작업단) 구성을 제안함. 이 같은 제안은 MEF 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즉석에서 수용돼 주목을 받았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인 MEF에서 “기후변화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대처하려면 자원과 기술 이전에 관한 원칙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MEF 참여 국가들이 실무 차원의 작업반(워킹그룹)을 만들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즉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9월 피츠버그 G20 회의에 앞서 재무장관들이 모여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 지원문제를 세밀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 또 유엔 특별기후정상회의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관련국 실무자 간에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또 MEF에서 ‘7대 전환적 기술’의 하나인 ‘스마트 그리



드(지능형 전력망) 기술의 선도국가로 한국이 지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은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국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李대통령 “12월 WTO회의 DDA타결 계기돼야”(7/10)**

- G8(선진8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오는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정례각료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DDA 협상은 지난 1995년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제네바 2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됐지만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라퀼라의 임시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 무역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한 정상들의 정치적 결의라고 생각한다”면서 “12월 개최 예정인 WTO 정례각료회의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함.
- 이 같은 제안은 G8 확대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G8 + G5 공동선언문’에 반영됐으며, 오는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통상장관들이 먼저 만나 더 실효성있는 방안을 도출하자는데 합의에도 영향을 끼쳤음.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 회복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사정을 고려할 때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는 각국의 정치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따라서 이 시점에서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차단과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를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 “정상들이 직접 나서 WTO의 모니터링 결과를 점검하고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스탠드 스틸(stand still:보호무역 조치 현상동결)’의 충실한 이행을 재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北, 개성회담 “무의미” 결론냈나>(7/10)**

- 북한이 1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추후 열릴 실무회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결심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성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한두차례 회담에서도 남측이 그동안 4차례의 회담에서 밝혀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의 우선 해결 등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자신들이 이미 밝힌 대로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에 대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꿔 적용하겠다는 뜻임.



- 북측이 지난 5월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료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 뒤 남북한은 지난 2일까지 4차례의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4차 회담에선 추후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음. 그러나 북한이 남측에 ‘성실 회담’을 촉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5차회담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올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4차 접촉에서 마침내 저들의(남측의) 대결적 본성을 낱알이 드러냈다”고 말해 개성회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을 시사했음.
- 이 대통령은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라고 규정했음. 또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와인과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10일부터 엄격히 통제한다고 발표했음.
- 이와 관련, 장용석 평화문제 연구소 연구실장은 “북측은 이 대통령의 유로뉴스 인터뷰를 통해 남한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은 물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교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 러, 키르기스에 두 번째 군기지 요청(7/9)

-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자국의 두 번째 군기지 설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9일 키르기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고르 세친 부총리와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번 주 키르기스를 방문했다”면서 “그들이 키르기스 지도부에 두 번째 기지 개설을 제안했다”고 말함.
- 러시아가 군기지 설치를 검토 중인 곳은 키르기스 남부 오슈시(市) 인근 지역으로 알려짐. 현재 키르기스에 칸트 공군 기지를 보유한 러시아가 추가로 군기지 설치를 계획하는 데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아프간에 대한 전략적 전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특히 이 계획은 최근 키르기스의 마나스 미 공군 기지 폐쇄 결정 번복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월 미국에 마나스 공군기지 폐쇄 입장을 밝히며 오는 8월까지 기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 대테러전의 중간 거점이 필요한 미국 당국을 긴장시켰음.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파키스탄을 통한 보급로가 끊긴 상황에서 2001년부터 아프간 보급로 역할을 해온 마나스 기지 폐쇄 결정은 미군 병력을 증강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음.

- 그러나 키르기스 의회는 지난달 25일 이 기지의 연장사용 승인안을 통과시켰고 7일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 미국은 지금의 기지 임대료의 3배가 넘는 6천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지만, 아프간 작전용 병참 수송센터를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임. 이 소식통도 “러시아는 마나스 기지 유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우리와 군사 협력 증대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함.
- 한편, 러시아는 지난 5월 자국이 2003년부터 사용하는 칸트 공군기지의 임대 기간을 최장 49년 연장하기로 키르기스 정부와 합의함. 칸트 공군기지는 마나스 미국 공군기지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러시아의 전략 기지로, 400명의 병력과 소규모 전투기와 수송기 등을 운용하면서 옛소련 국가의 안보 동맹인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합동 군사 훈련 시 물자와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中 “달러 기축통화 체제 개선해야”(7/9)

-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9일 국제적 환율 안정을 위해 현 기축통화 체제를 더욱 다원화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진행 중인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국제 통화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함.
- 그는 “우리는 기축통화 발행 및 규제와 관련해 더 나은 시스템을 가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주요 기축통화들의 환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원화되고 합리적인 국제기축통화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로버트 깁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라퀼라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던지 상관없이,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벗어날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함.

● 中, “위구르사태는 내정”…유엔 논의 거절(7/9)

- 중국은 9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유혈 시위사태 해결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터키 정부의 제안을 거절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순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이에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8일 걸프협력기구(GCC) 회의에서 신장지역 위구르족 학살사건을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자고 제의했음.



●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 15~16일 방한(7/9)

- 올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오는 15~16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힘. 티모셴코 총리는 방한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승수 총리와 회담하는 한편 경제인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임.
- 양국 총리는 16일 개최될 회담에서 경제·통상,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개발경험 공유, 우크라이나내 고려인들의 안정적 체류 지원 노력 강화 및 문화교류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정치, 경제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임.
-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교역규모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연간 교역규모가 2008년말 기준 약 26억달러에 달함.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자 무역흑자 대상국”이라며 “티모셴코 총리의 방한은 우크라이나 총리로서 최초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G8, 복잡한 숫자에 담긴 국제정치 함수>(7/8)

- 최근 국제정치 현상의 가장 기이한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참가자 수임. 원래 숫자대로라면 서방 7개국(G7)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러시아 정상을 더한 8명이 돼야 하지만 실제 주요 유럽국가들의 느슨한 연방체인 유럽연합(EU)을 합쳐 G8의 회원은 총 9개 나라 혹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됨.
- 그러나 정작 이에 참가하는 각국 혹은 기구 대표는 총 10명에 이룸. EU의 경제 규모와 구조상 유럽집행위원회(EC)를 대표하는 집행위원장과 EU의 순회 대표국 정상을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G8의 관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임. 이같이 국제정치 현실의 변모에 따라 국제기구의 위상이 변화하며 애초 위상과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 법칙에 가까운 것임.
- 8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는 G8 확대 정상회의는 이들 외에도 브라질과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경제 부흥을 이루고 있는 신흥 5개국이 참여함. 이들은 때때로 G8에 대비해 ‘G5’로 불리고 있음. 그러나 개막식 오찬에 G5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슬람권을 대표해 이집트 정상이 동참하기 때문임. 오후가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한국을 비롯, 호주와 인도네시아, 덴마크가 기후변화 의제 회의부터 참석하는 것. 덴마크는 12월 기후변화회담 주최국 자격으로 참여함.
- 참여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주요 20개국(G20) 구성국들이지만 덴마크와 이집트가 예외임. 이에 반해 G20 성원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



아는 이날 오후의 참석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음. 기후변화회담의 주요 이해당사국이 아닌 탓임. 대신 터키는 8일 저녁 이후 참여 자격을 얻었음. 이와 함께 향후 G20의 22번째, 23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참여 자격을 얻었음.

-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논의하게 되는 10일에는 아프리카 6개국과 10개의 국제기구 등이 추가로 합류, 총 참가자 수는 40명에 이르게 됨. 숫자풀이 퍼즐에 빠져든 이가 아니라면 뜨거워진 머리를 잡고 두통을 호소할 만한 일임. G8 주최국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6일 G8을 G14으로 확대 개편해 이 모든 골칫거리를 해소하자고 제안함.

● 中 위구르사태 악화..후 주석 급거 귀국(7/8)

-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시위사태가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음. 중국 신화통신은 8일 후 주석이 신장지역 시위 사태를 직접 수습하기 위해 이탈리아 국민 방문과 G8 확대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중이라고 보도함. 신장 위구르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분리독립 요구 시위로 최소한 156명이 숨지고 1천80여명이 다치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이날 오후 개막하는 G8 확대 정상회의에는 후 주석을 수행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대신 참석하기로 함. 또 후 주석이 G8 정상회의 중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개별 정상회담과 양자회담 일정은 물론 G8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10일로 예정된 포르투갈 국민 방문 일정도 취소됨.
- 후 주석은 베이징에 도착하면 곧바로 중국 공산당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신장지역 시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신장지역 위구르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는 중국 당국의 수습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한족들이 보복 시위에 나서면서 점차 민족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李대통령, 한·폴란드 3대협력분야 제안(7/8)

- 폴란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양국의 3대 협력분야로 플랜트와 SOC(사회간접자본), 문화산업을 제안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에서 열린 한·폴란드 경제협력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며 “한·EU FTA가 효력을 발휘하면 특히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늘어나고 연관산업이 활기를 띠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과 관련, “폴란드는 에너



지 안보 및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와 LNG터미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플랜트 강국인 한국은 폴란드와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원전 1~2호기의 건설과 함께 최초의 LNG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이며 LNG터미널에 대해서는 곧 사업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이 대통령은 또 “폴란드가 EU 기금을 활용, 도로·철도·지하철 등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2012년 유로컵 대회를 앞두고 축구장, 공항, 호텔, 정보통신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문화산업 협력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폴란드는 가장 위대한 피아노 작곡가인 쇼팽의 모국이며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펜데레츠키의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폴란드의 영상산업과 한국의 IT(정보기술) 접목을 접목한다면 문화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이 비슷해 더욱 친근한 느낌을 갖는다”면서 “술한 외침의 고난 속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1980년대에는 민주화를,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이뤄 마치 서로 어깨동무하며 발전해온 것 같다. 더구나 1996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함께 가입해 같은 반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친근감을 표시함. 그러면서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양국 정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양국이 경제위기 극복의 선두주자가 돼 전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는 중부 유럽 가운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2008년 수출 41억1천만달러, 수입 3억달러)이자 최대 투자대상국(2009년 3월 현재 14억8천만달러)으로, 연평균 교역규모가 최근 5년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SK케미칼, 대우건설 등 100개사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음.

● <中, 새 기축통화 ‘이중 플레이’>(7/6)

- 중국이 오는 8-10일(이하 현지시각)의 주요 8개국(G8) 연례 확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기축통화 문제에서 ‘이중 플레이’하는 모습이 완연함. 로이터와 신화에 따르면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5일 로마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 달러화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그는 또 “학자들 사이에 (달러를 대체할) 슈퍼통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학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야페이는 그러면서 슈퍼통화를 지금 논의하자는 것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로이터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지난 3월말 G20 런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업그레이드해 궁극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슈퍼통화로 만들자는 구상을 처음으로 내놓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새 기축통화 문제에서 이중 플레이하는 것으로 분석함.

- 허야페이도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이번 G8 회동에서) 먼저 새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이 제기한다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함. 로이터는 중국의 이런 제스처에 대해 ‘워싱턴을 겨냥한 무마용’인 동시에 세계 최대 달러자산 보유국으로서의 실익을 감안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함. 보유 외환 1조9천500억달러 가운데 70%가량이 달러자산인 상황에서 달러를 흔드는 것이 마냥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 스즈키 요이치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도 지난 3일 도쿄에서 가진 로이터 회견에서 “달러가 다른 통화로 대체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들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총대 매기’로 외신들은 분석함.
- 반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인 세르게이 프리호드코프는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G8 회동에서 새 기축통화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함. 메드베데프는 앞서 금융 위기를 계기로 달러의 향후 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달러를 대체할 ‘지역통화 혼합체’를 만들 때라고 밝혔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인도도 본격적으로 ‘달러 흔들기’에 한 목소리를 냄. 수레시 텐둘카르 인도 총리 경제자문위원장은 3일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 보유외환의 상당 부분이 달러”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기고 있다”고 말함. 인도는 2천646억달러 가량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텐둘카르는 달러 비중이 높은 것을 “최수의 딜레마”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인도 중앙은행이 달러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함.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 말을 빼기도 함.
-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새 기축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음.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5일 엑상프로방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외환 시스템이 중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외환 정책의 협조를 더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함. 우회적인 발언이지만 달러를 대체할 새 기축통화를 모색하자는 얘기임.
- 프랑스 중앙은행의 크리스티앙 노이어 총재도 한 목소리를 냄. 그는 “통화 보호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외환 시스템이 필요하



다”면서 “주요 통화들 간의 안정성 확대가 앞으로 필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함. 역시 달러 위상 추락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임.

- 그러나 G8 확대 정상회담 후 나올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인 소식통들은 “달러 문제가 우회적으로 언급되고 다뤄질 전망이지만 성명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어지는 전함. 달러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달러 어쩔 도리가 없다는 현실론이 아직은 대세임을 뒷받침하는 것임. 중국의 이중 플레이도 이런 맥락이라고 관측통들은 입을 모았음.

● 李대통령 “한·EU FTA 7,8월 합의 기대”(7/8)

- 폴란드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가능하면 7, 8월중 최종합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랫동안 협의해 왔으므로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됐다. 몇몇 개별국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함.
- 그러면서 한·EU FTA체결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가 유럽에 대거 수입돼 유럽자동차가 밀려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한국차는 값싼 차가 아니며 가격 면에서 유럽차와 비슷하고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요즘 한국에 유럽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유럽차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EU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함.
-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는 이전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언급했었음.
-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만드는 대량살상무기가 다른 국가에 전수되고 또 핵물질이 넘어가게 되면 핵보유 유혹을 받는 나라가 많아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굳건하게 보조를 맞추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다고 본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므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가장 폐쇄된 나라의 지도자다. 모든 나라가 개방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G8(선진8개국)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세계 공통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G8의 힘만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G8선진국과 여타 신흥국들이 힘을 합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세계 공통관심사 해결에는 G20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참고 1] <한폴 정상회담 공동회견 발언 전문>(연합뉴스, 7/8)

- ▲이명박 대통령 = 오늘 우리 내외와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준 카친스키 대통령과 폴란드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 12월 카친스키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많은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양국간 협력문제와 세계 여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문화, 과학 등 여러 면에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G20,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또 새로 주어진 세계적 과제에 대해 견해를 나눌 수 있었다. 카친스키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저는 높이 평가를 한다.
- 양국은 지나간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관계를 남겼다. 무역문제, 인적 교류 등. 올해 20주년 기념하는 시기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향후 20년은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 합의를 이루게 되면 한국과 폴란드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조금 전에 카친스키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폴란드의 중요한 정책인, LNG 터미널 건설에 있어서도 한국의 오랜, 경쟁력 있는 경험이 도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T50을 위시한 방산협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진 경쟁력과, 이런 국가적 사업에 있어서는 건설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의 오랜 장점을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 의지를 말씀드렸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양국의 기업인들은 더욱 어느 나라보다도 서로 기업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가 가장 잘 통하는 민족이다.
- 이것이 양국이 바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파트너로서 경제협력뿐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폴란드의 오랜 역사, 과학과 문화, 오랜 의회의 역사와 관련해 모든 점에 있어서 한국도 폴란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양국이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회담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카친스키 대통령과 폴란드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고맙게 생각하고 양국이 크게 공동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 폴란드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올해가 한-폴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이래 더욱 뜻깊은 방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폴란드는 외교적으로 관계가 매우 긴밀해졌지만 경제 분야, 그리고 여러 분야 관계가 깊어져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다양한 협정들이 체결됐다. 경제, 무역, 외교, 과학기술, 상호투자 등 약 18개



에 달하는 협정들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오늘 회담을 하면서 국제적인 경제 위기, G20의 미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배경 등 G20에서의 여러 가지 합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와 안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양국간에 지리적으로 거리는 꽤 되지만 상호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의했다. 경제 분야 협력도 합의했고 재확인했다.
- 방산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T50 고등훈련기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리고 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원전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프라인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6개월 사이에 원전 건설 문제가 (국내적으로) 합의됐다. 작년 12월에 방문했을 때만해도 폴란드 정부가 (원전 건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결정했고 앞으로 2기를 건립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현재 폴란드 정치체제 안에서 경제 분야는 총리, 내각이 결정하게 된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서 투스크 총리와 만나 이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한다. 또한 저희가 논의했던 사항 중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對) 폴란드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다. 양국은 인구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 한국이 인구와 GDP 면에서 폴란드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폴란드 투자가 스케일에 맞게 이뤄지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 중요한 문제는 한·EU FTA가 양국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그만 디테일에 있어서 합의돼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간 경제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경제와 문화 외에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제가 방한했을 때 어느 대학을 방문했더니 폴란드 문학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봤다. 또한 여러 폴란드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놀라웠다. 이러한 양국 관계에서 문화협력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북핵 문제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바르샤바=연합뉴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08/0503000000AKR2009070821570001.HTML>



[참고 2] <G8 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연합뉴스, 7/11)

(서울=연합뉴스)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8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10일 막을 내렸다. 다음은 AP 통신이 정리한 G8 회담의 주요 합의사항.

- ▲ **기후 변화 문제** = 지구 온난화 대처를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 지구의 기온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내로 유지한다는 원칙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 ▲ **세계 경제** = 정상들은 세계 경제에 아직 ‘중대한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고 보고 경제 회복의 기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및 통화확장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 **이란 문제** = 정상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이란 정부의 언론 통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이나 ‘추가적 조치’는 논의하지 못했다.
- ▲ **기아 문제** = 정상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국가의 농업 투자에 2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식량원조에만 의존해오던 정책에서 방향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농업투자를 통해 식량증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 **무역 문제** = 정상들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내년안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 **통화 문제** = 정상들은 무역에서 ‘불공정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 ▲ **기축통화 달러 문제**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outdated)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성명에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rainmaker@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11/0503000000AKR2009071102020009.HTML